

여름철 입맛도 살리고, 체력도 챙겨준다. 힘이여 솟아라, 물오른 보양특식!

▶KBS2TV VJ 특공대, 2009년 6월 19일(금) ▶장수민촌 : ☎031)852-9901



【이정민 아나운서】 자칫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.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음식만한 보약이 없겠죠. 한창 물오른 부추와 영양만점 오리가 만난 부추 백숙. 여름철 뚝 떨어진 입맛도 살리고, 체력도 챙겨주는 원기회복 별미들,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



기운 팔팔, 힘이 철철! 여름을 이기는 기찬 맛 하나면 열 보약 부럽지 않다.

【손님1】 원기회복에 최고

고요.

【손님2】 기운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.

힘이여 솟아라! 맛도 영양도 제대로 물올랐다. 보약도 저리가라. 6월 더위도 문제없다. 푸짐하고 속 든든한 밥상 받으러 한번 나서볼까.



제철 부추 한 단이면 인삼, 녹용 안 부럽다. 요즘 한창나는 부추로 원기회복!

【사람들】 제철 부추예요~

땅의 기운과 제철 영양까지 합세했다는데.

【민정현 氏】 5월서부터 9월 초까지(부추가 제철입니다) 아주 영양가 많고, 몸에 참 좋은 겁니다.

이왕 먹는 부추 특식으로 즐겨라~



【손님3】 부추백숙 먹으러 왔어요.

【손님4】 맛있어요, 부추가.

근데 부추 백숙에 부추만 보일까.

【손님5】 안에(오리가) 있잖아요.

웁다구나. 부추를 드러내니 오리 한 마리가 통째로 모습을 드러내고, 이제야 부추백숙 이름값 한다. 원기회복의 두 최강자인 오리와 부추가 만났으니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.





한 마디라도 덜 하고 잠
자코 한 입이라도 더 먹
는 것이 남는 장사여~
【손님6】 신선한 맛, 달콤한
맛



기본기 탄탄한 오리라도 원기회복에 차질 없도록 각종
한약재로 속을 꽉 채우고... 건강 특식 자격에 한 치의
모자람이 없다. 거기에 색깔 선명하고 쪽 뺀 부추를
잔뜩 얹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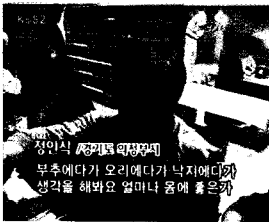
【조정분 사장】 오리고 부추는 궁합도 잘맞아요.



부추백숙의 화룡정점을
찍는다?! 힘쓰는데 한가
닥하는 낙지가 제 3의 주
연. 쓰러진 소도 일으킨
다는 실력 발휘로 원기회

복에 힘을 신는다는데...

부추와 오리, 그리고 낙지까지! 맛도 영양도 이보다 완
벽할 수 없다는 삼인방이 또 있을까.



【손님6】 부추에다가 오리
에다가 낙지까지. 생각을
해봐요. 얼마나 몸에 좋은
가...

물고 따지고 재봐도 뭐하
나 빠지지 않는 보양식. 부추, 오리, 낙지 삼박자를 맛
있게 먹고 건강해질 일만
남았다.



【손님7】 기운이 벌떡벌떡
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습
니까.



부추백숙을 자주 먹다보니 쉽게 먹는 방법도 자체 개발
했다는 아주머니. 젓가락에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쏙!



【손님8】 부추가 오리고
만나니까 상당히 부드러워
지고 오리 냄새가 안 나고
부추향이 나니까 정말 맛있
어요.

【손님9】 몸이 개운해요~



제 철이니까 더 당긴다. 향긋한 부추가 무한리필! 힘이
떨떨나는 부추백숙, 기차게 맛있다~

